

Knut Heim 박사, 잠언, 17장,

잠언 30:1-9 Augur

© 2024 크누트 하임(Knut Hei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크누트 하임(Knut Heim) 박사와 잠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7회, 잠언 30장 1절부터 9절, 아고르 서문입니다.

성서 잠언 제17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잠언 3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연을 하는 이 순간에도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에게 이 환상적이고 놀라우며 흥미진진한 책의 모든 장 중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장이 그토록 수수께끼 같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첫 구절에서 우리가 적어도 여기 1절에서 우리가 말한 내용을 저술한 새로운 인물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9개 절은 일종의 일관성 있는 부분인 반면, 10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 가지 매우 흥미로운 범주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읽을 때 매우 빨리 인식합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진술은 매우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나는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일관성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 한구석에는 내가 단순히 두 집단 사이에 내적 일관성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유럽인으로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구조와 일관성을 강요하는 것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서구 철학적 사고 방식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하지만 저는 우선 이 장의 처음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 주고 싶습니다. 먼저 새 개정 표준역(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 읽고 그 다음에는 신 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읽어 보겠습니다. Version을 선택한 다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읽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갑니다. 그 제목은 신탁자 야겔의 아들 아굴의 말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오 하나님여, 내가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저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겔의 아들 아굴의 말은 영감받은 말입니다. 이 남자가 Ethiel에게 한 말입니다. 둘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NRSV에서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 아들 아굴의 예언이라 . 신탁에 대한 NRV에서는 영감되지 않은 발언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거의 같은 종류의 것을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문구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오 하나님여, 내가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NRV에는 이 사람이 Ethiel에게 한 말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믿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슬로건 중 하나인 클라리타스 스크립추라(*claritas scripturae*), 성경의 명확성을 따르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현대 영어 번역본 두 개가 왜 그토록 다를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무슬림 신자들에 의해 자주 제기되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꾸란의 꾸란은 여러 면에서 훨씬 더 간단하며, 우리에게는 흔히 관련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의 꾸란 영성에서는 꾸란을 번역해서는 안 되고 항상 원본으로 읽어야 한다. 이제 NRV와 NRSV의 원본은 같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번역해 보면, 하나의 동일한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두 가지 버전이 없습니다. 동일한 버전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글썄요, 이것이 제가 앞서 잠언서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특이한 부분 중 하나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는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말하는 내용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이 강의에서는 히브리어 자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룰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다소 지루하고 매우 상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히브리어 단어가 매우 특이하고 매우 드물며 문법적, 구문론적 구성도 특히 1절의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에티엘에게 한 말을 번역하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아, 오 하느님, 제가 지쳤습니다. NRSV의 God 비트는 NRV의 Etiel의 iel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Etiel이 무엇인지 정말로 모릅니다.

NRV는 Etiel이 실제로 성경이나 다른 곳에서 증명되지 않은 사람의 개인 이름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특이한데요. 반면 NRSV는 이것이 복합 명사일 수도 있고 서로 가깝고 함께 쓰여졌지만 별도로 읽어야 하는 두 개의 다른 명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티엘(Etiel), 에트(Et), 에일(Ale)을 분리하는데, 에트는 피로, 나의 피로 같은 것이고 에일은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글썄요, 우리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Jaki의 아들인 Agur의 정체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아구르가 실제로 외국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인종적으로 말하면 비이스라엘인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신학은 철저히 이스라엘적이다.

그러면 그는 아버지의 이름도 특이하고 이름도 아주 특이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한 외국인이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이 사실이라면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두 번째 옵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보에 근거한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외국인이었고 이제 새로운 신앙을 가진 외국인으로서의 그의 삶의 경험에 대해 철학적, 유사 철학적 성찰을 기고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마도 부분적으로, 음, 분명히 부분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도 섹션의 시작 단어와 해당 장의 후반 단어가 왜 그렇게 어렵고 특이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어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히브리어가 그의 모국어가 아니라 제2언어라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Agur가 여기 그의 성찰에서 공유하고 있는 특이성의 일부 특이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다음 질문은 다행스럽게도 NRSV와 NIV가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NRSV는 우리가 읽고 이야기하려는 말씀이 신탁이라고 말하는 반면, NIV는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설교나 짧은 시적 묵상을 언급할 때 신탁이 자주 언급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의 진술 중 일부는 마사(masah)라고 불리며, 여기 NRSV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오라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신탁인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인 마사(masah), 즉 마사(masah)라는 단어는 아굴의 말을 특정 유형의 발화 또는 의사소통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즉, NIV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더 분명하며 선지자와 유사한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NIV가 직설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영감받은 말씀을 말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아구르의 묵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4절을 보면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NIV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그의 그가 죽기 직전 마지막 말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 대한 자신의 성찰과 자신을 사람, 사람으로 묘사하는 참고문헌에 대해 매우 유사한 표현으로 말하고 나서 이제 곧 신탁인 마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Agur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의 인생 여정에 대해 다윗이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와 다윗의 경우 에서 신탁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에서 영감받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 반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또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도 더 복잡하게 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사라고 불리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Agur와 Jake라는 이름이 모두 외국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으며 일부 영어 번역과 다른 번역은 이것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이 서문은 마사 지역 마사 출신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게 문제인가요? 글쎄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거나 잃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뒤따르는 내용이 성경의 일부로 포함되어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사 출신의 누군가에 의해 행해졌는지,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영감받은 말씀인지 여부는 다음 구절에 기록되는 내용의 중요성과 타당성 및 진실성을 실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도,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서문은 아마도 이 장이 아마도 성경 잠언에서 가장 무시되거나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장 중 하나라는 사실에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할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이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의 다소 모호한 시작을 통해 방금 길을 열어준 후, 나는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원래 비이스라엘인이었는데 믿음에 이룬 사람이 성경에 공헌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부드럽고 잠정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지금은 아마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의 생애 말년에 그의 여정에 대해 그의 참고 문헌에 대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아주 짧게, 다윗보다 훨씬 더 짧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긴 참고문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르고에서 우리는 단지 이 몇 구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절의 나머지 부분과 2절과 3절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아르고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의 일기 항목과 같습니다. 매우 정직합니다. 그것은 매우 자기 비판적이며 거의 자기 혐오에 가깝습니다.

놀랍도록 강력한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진술 자체로는 다소 삭막하고 극단적이며 어쩌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분 후에 제안할 것은, 일단 그가 여기에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본 후에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시작 아홉 구절의 더 큰 틀에 넣어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배경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아르고가 왜 여기서 자기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학적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르고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을 읽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여 내가 피곤하니 내가 어떻게 승리하리이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적용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맥락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오 하느님, 제가 지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은 그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 그가 너무 늙고 허약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고 느낄 때, 마지막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내가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지 않다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정보에 입각한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David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David의 유사한 진술과 유사점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더 젊고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살기를 희망한다면, , 그렇다면 그가 어떤 종류의 위기로 인해 지쳐 있다는 사실에 더 가깝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언급한 많은 이유들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읽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다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굴은 자신이 죽기 전에 더 많은 삶을 기대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텍스트 자체에 의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찢겨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안내되며,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결정적인 것은 아구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한 내용이며, 이는 그가 그의 인생의 끝이 가깝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는 자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쩌면 낙담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나는 인간이 되기에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나는 인간의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와 거룩한 자들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게 다 뭐야? 따라서 이 구절, 그가 하는 아굴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너무 멍청해서 인간만큼 총명하지도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이 종교적 신념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식.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식과 지혜에 관한 모든 모음집의 거의 끝 부분에 있는 읽기에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습득에 관한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이상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고통 중에 영감받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지능에 있어서 인간으로 간주되기에는 너무 어리석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액면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든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인상은 이 사람이 분명히 일종의 우울증과 자기 증오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강의 시리즈 전반에 걸쳐 제안한 것처럼 상상력을 가지고 계속 읽으면 우리 구루가 기도할 때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연설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이것이 그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는 하나님 께 과장된 방식으로 하나님, 나는 나의 지적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과장된 겸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무지를 초월하도록 은혜롭게 도우시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던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과 거의 비슷하다. 그것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나의 현대적인 의역입니다. 이것이 아르고가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다소 과장되고 자기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에게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통찰력을 주어 그가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한 가지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 따르면 Argo가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들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niv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번역본을 참고해 본다면, 나는 거룩한 것에 대해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번역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는 종종 불충분하게 결정되고, 전문 언어를 사용하며, 특별한 종류의 문법적, 구문론적 형식을 사용하여 이를 다중화하고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여러 성경 번역본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 천사나 다른 신들과 같은 거룩한 초자연적 존재들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 그리고 셋째, 물론 거룩한 분,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이 강의 시리즈 전반에 걸쳐 상상적으로 읽으면서 강조했던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번역은 번역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신성한 것이나 신성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는 가능한 세 가지 해석을 모두 포함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므로 영어 번역은 Agwe가 여기에서 표현하는 세 가지 가능한 의미인 다중성을 반영합니다. 나는 종교적으로 무지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내가 여기서 해석적이고 주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려고 할 때, 나는 힘든 주석 작업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힘들고 주석적인 작업이 끝날 때 이 모호함이 고의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잉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려는 것은 의도적인 모호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말하지만, 나의 상상적 해석 노선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의 본문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Agw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까? 글쎄, 나는 그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성경 학자들의 전문 용어로 묘사한 주석의 핵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해결했다.

물론 제가 웃고 있는 이유는 제가 다소 대담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매우 존경받고 능력이 뛰어난 학자들 중 소수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도 해보고 싶고, 과감하게 하면서도,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자, 여기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은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모르고 피곤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나요?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4절에 도달하면 4절은 5~6개의 연속적인 질문을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섯 가지 질문이 모두 연속해서 하나씩 있고 이 질문은 기관총처럼, 산불처럼 이 담화로, 이 대화로 다가옵니다. 아굴과 그의 신 사이. 그리고 즉시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는 누가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아 보자. 그래서 3절은 아그웨가 “나도 종교적인 것에 대해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질문이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느냐? 누가 손등으로 바람을 모았느냐? 누가 물을 옷으로 감쌌느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엇? 다시 한 번 우리는 당황하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질문의 내용과 실제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는 그것이 여전히 Agur 말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gur는 방금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는 질문의 종류가 해당 시나리오에 적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느냐? 누가 손등으로 바람을 모았느냐? 누가 물을 옷으로 감쌌느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말 Agwe가 묻는 질문과 같나요?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어떤 수준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실제로 질문이 제시되는 방식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한두 단어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자마자 당신은 물론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답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느냐? 하나님.

누가 손등으로 바람을 모았느냐? 하나님. 누가 물을 옷으로 감쌌느냐? 하나님.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님. 마지막 질문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글썄,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이상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련의 수사학적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공격을 가합니다.

뽐, 뽐, 뽐, 뽐, 뽐. 그리고 이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항상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신자와 그들의 신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구르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대답하는 신이 아구르가 아니라 대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속사포 질문의 순서를 숙고할 때, 실제로 우리는 성경 문헌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고 죽음에 가까워진 또 다른 현자에게 정확히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 또 다른 속사포 질문의 순서를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읊입니다. 읊기 38장부터 42장에는 말 그대로 수백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수백 가지 질문이 있는데 대부분은 매우 유사합니다.

내가 지구 등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속사포 질문들이 아구르에게 당신이 종교적인 것에 대해 모른다고 고백했고 저도 동의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말하기 위해 여기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식이 부족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나 도전 속에서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 말고, 여러분의 고민을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내 생각에 그것은 신과 아구르 사이의 수사학적 교류이다.

그래서 아굴은 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신이시여, 이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아마도 그것이 상황을 바꾸거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실제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시며, 너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닌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지식 부족에 집중할 필요도 없고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특정 위기에 대해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사실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의지하면 내가 해결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해석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발견한 것과 일치하는 상상적 해석이라고 생각하며, 개별 진술과 더 큰 관점에서도 전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글이 쓰여진 당시에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인지에 대한 질문이며, 마지막 질문인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해석에서 문제 중 하나이자 아마도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이 잠언을 계속해서 작업하는 동안에도 이 설명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더 확신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지막 진술은 다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대답을 암시하는 수사적 질문인 다른 질문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수사학적 질문이지만 다른 종류의 대답을 암시합니다. 대답보다는 이름이 예수라든가 그 이름이 또 다른 작은 신이라든가 어떤 신의 아들이라든가, 오히려 묵시적인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좀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공세는 다음과 같은 진술로 끝납니다. 확실히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수사학적 질문인 이 모든 질문의 마지막에, 그리고 그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모든 질문을 물으셨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악어와 하마를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지, 이 모든 놀라운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을 문지르시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완전히 풍자적입니다. 내 생각엔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굴에게 분명히 너는 알고, 물론 너는 모르며, 나는 그것을 알고 너는 그것을 알고, 나는 네가 아는 것을 알고, 너는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합니다. 즉, 제 생각에는 이 대화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불쌍한 아구르와 그의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이의 친절하고 온화한 상담 세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어른의 심각한 대결이다. 하늘의 어른과 땅의 어른이 먼지에 코를 비비고 있다. 이제 이 끝에서 Agur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그가 방금 들은 것, 그가 방금 들은 신의 말씀에 대한 아구르의 첫 번째 반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피신하는 이들의 방패이십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나요? 아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문에 직면하셨다고 해서 겁에 질려 당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지혜로 직접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되다고 하셨습니다.

문맥상 제가 옳고 4절이 모두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굴이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방금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모든 말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내가 제안한 대로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의 영향은 자신의 이해나 부족함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리할게. 그리고 Agur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임이 증명됩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피신하는 이들의 방패이십니다. 팔.

아구르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한 어떤 위기라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6절.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희를 꾸짖으시고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와 관련된 아구르의 두 번째 묵상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에 대해 논평하는 최종 편집자가 이러한 문제를 넘어 전도서의 이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는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하는

전도서의 결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책은 끝이 없고 몸이 어디에 있는지 연구하는 일이 많다. 우리는 또한 성경,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계시에서 아무것도 빼거나 추가하지 말라고 말하는 다른 많은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의 계시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이외의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 저술물에는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진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텍스트에는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 아무것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합하지 않게 만드는 진술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가 말하는 것에 영감을 받은, 분명히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을 때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많은 지식을 주고, 더 많은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지식보다 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도 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보완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29장까지는 모두 청년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당시에는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젊은 남자, 젊은 여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더 많이 얻으면 스스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책의 끝부분에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며 지적 겸손과 믿음을 표현하는 모범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아무것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잠언의 발전에서 후기 단계인데, 아르고가 아마도 또 다른 경우에 만들어낸 매우 강력하지만 수수께끼 같은

성찰이 이 모음집에 추가되어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계시로 강화되는 지혜의 가치에 대한 더욱 성숙한 성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것은 지혜문학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머지 말씀을 미묘하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라, 모세의 다섯 권의 책,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마도 선지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매혹적인 성경 정경의 예언서입니다.

나는 앞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2장은 젊은이가 배워야 할 가르침인 토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모세오경에 사용된 단어는 바로 토라(Torah)라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기에 언급된 토라는 단지 동의어일 뿐이고 모세오경인 토라의 동의어나 명칭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장을 돌이켜보고 다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이 책의 시작 부분에 있는 2장과 책 참조 끝 부분에 있는 여기 30장에서 가려진 참조가 있다는 매우 훌륭하고 강력한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성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의 초반에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다른 종교적 측면이 잠언과 전도서, 욥기에서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놓쳤던 고대 이스라엘 영성의 다른 측면이 실제로 여전히 배경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약간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이 책은 세속적이거나 다른 종교 저작물과 분리되지 않으며 그 시대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Agur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통해 방금 배운 내용의 영향에 대해 철학적,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초기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7절에서 9절까지 아굴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는 직접적인 기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묵상은 이제 하나님과 아굴 사이의 이 대화의 전체 구조 내에서 직접적이고 독특한 기도 순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에 읽은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금 그에게 당신은 나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방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신하는 사람들의 방패이시며 지금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피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 피신하여 이렇게 하는 방식이 실제로 아구르가 어떤 종류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치유나 내면의 힘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그가 인생의 충만함에 있는지 아니면 인생의 초기에 있고 특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지와 더 관련이 있습니까? 나는 그가 특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두 가지.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죽기 전에는 그가 죽음에 가까워졌음을 다시 한번 암시한다. 그런데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역시 초기의 발언과 비슷한 과장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아,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실 꽤 많이 알고 있구나'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그가 "아, 내가 죽기 전에"라고 말한 것은 그의 기도에서 수사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비틀기 위해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서 거짓과 거짓말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가난함도, 부함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묻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당신에게 두 가지를 묻고 그 다음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가 말할 때, 첫 번째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서 거짓과 거짓말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는 같은 것을 두 번 표현하거나 비슷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도 부도 아닌 딱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먹여주세요.

따라서 아마도 그는 세 번의 항소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소는 실제로 하나의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이나 기도하면서도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두 가지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것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굴이 요구하는 첫 번째 일은 나에게서 거짓과 거짓말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거짓과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이 아구르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를 거짓으로 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배반하는 행위 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굴이 나 자신이 부당하고 기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되, 필요한 것보다 적지도 말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주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과잉이나 궁핍이 아닌 넉넉함에 대한 두 번째 요구가 거짓과 거짓말에 대한 첫 번째 요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가 9절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읽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내 소유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아니면 내가 배불러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주님이 누구냐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리로다. 그러면 그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 소유가 너무 많으면 다시 자립의 입장으로 떨어져 주님이 누구냐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수사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답은 주님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그의 성찰에서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물질적인 소유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려는 유혹을 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요성을 부인한다는 의미에서 거짓과 거짓말에 빠진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다른 극단인 경우, 그가 가난하다면 그에게 유혹은 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법을 어기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느 쪽이든 자립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Agur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교훈에 실제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전체 반성이며 시적 형식, 시적 명상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가 겪은 과정은 아마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은 것처럼 2분 안에 한 번의 기도 순서가 아니라 아마도 며칠,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부심과 자립, 그리고 그가 직면한 일을 다루는 것.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가 직면하고 있던 위기가 교만의 잠재력에 기초한 종교적 위기였다고 말함으로써 이 시작 부분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의 앞부분을 읽는다.

그리고 그는 이 성찰을 통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여기 본문 자체에서 좋은 휴식 시간을 제공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크누트 하임(Knut Heim) 박사와 잠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 아고르 서론 17번입니다.